

교육부 검정
2024. 8. 30



서 혁
김정우
김혜정
박종훈
신명선
강용철
오경란
강호정
김민선
강송연

초
학
교

국어 1-2



“—————”

표지 이야기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국어의 숲!
책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만나 보세요.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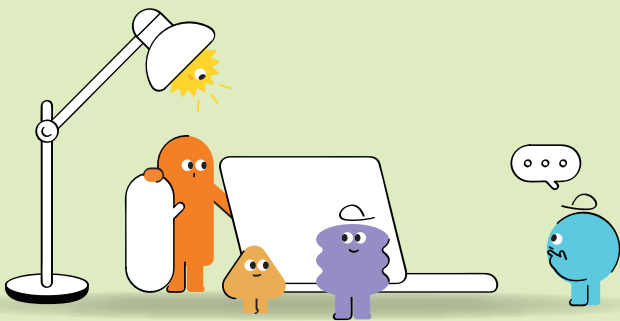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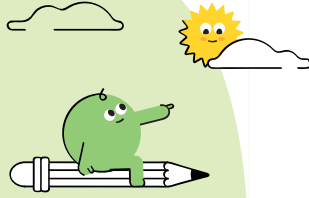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1차
2차
3차

국어 1-2

머리맡 2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밥을 먹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자면서 꿈을 꿀 때도 국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국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함께합니다.

국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활용할 때도 문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이고, 언어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주체로 살아갈 강력한 힘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모두가 국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습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각 영역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국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스스로 계획하

기, 생각 열기, 학습 상황 점검·조정하기를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중학생 여러분의

특성과 생활 방식, 관심사,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어 학습을 통해 생활 문해력과 학습 문해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어휘력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국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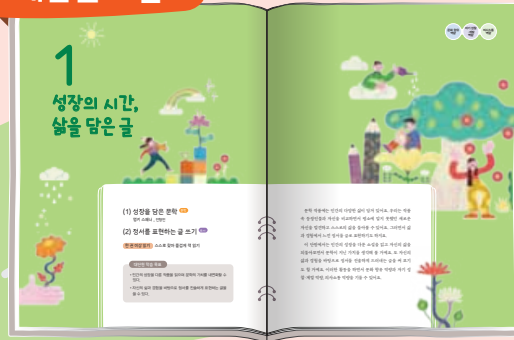
이 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어느새 여러분 앞에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도입



대단원별 학습 목표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을 소개하였어요. 대단원의 흐름을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소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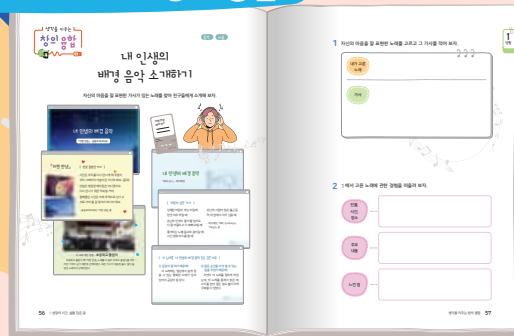


소단원의 영역별로 학습 목표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제재와 활동으로 구성하였어요. 제시된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학습 목표를 이루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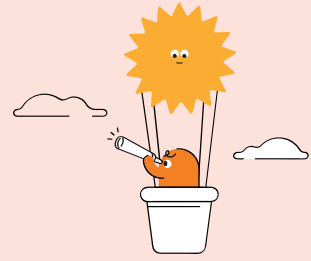
큐알 코드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키우는 창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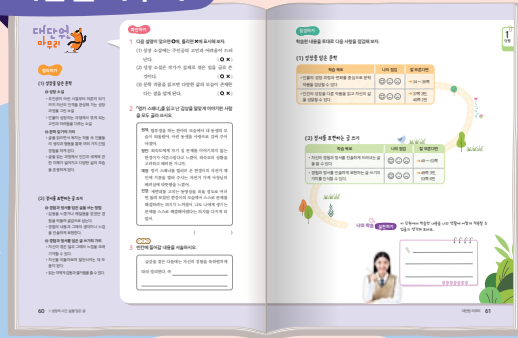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이나 교과와 융합하는 활동이에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여 사고력을 키워 보세요.





대단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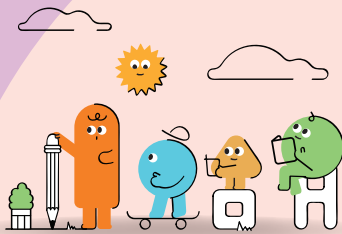
대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문제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단원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국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실생활 자료들을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삶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자기 주도 학습**에 최적화된 교과서
- 실제 **언어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교과서
- **교과 간 통합 활동**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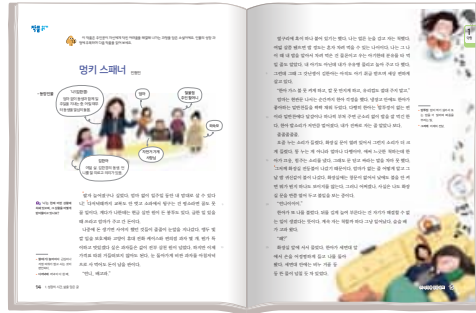
소단원 살펴보기



소단원 시작



소단원 학습



소단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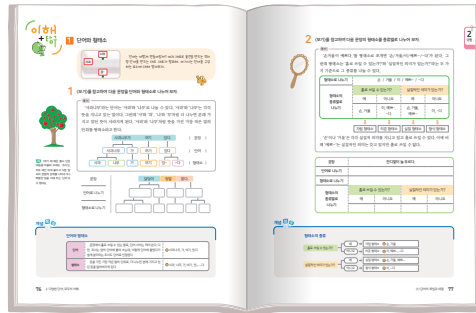
소단원 핵심 질문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해해 보세요. 또한 소단원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제재 중심: 문학, 읽기 영역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학 작품과 읽기 제재를 읽으며 학습 목표를 이루어 보세요.

스스로 계획하기

소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이전 학습을 떠올려 보고, 소단원 학습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보세요.



생각 열기 / 감상 열기

소단원 학습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소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만나 보세요.

- 읽기, 활동 중심 영역: **생활 속 생각 특독**
- 문학 영역: **감상 열기**

활동 중심: 문법, 듣기·말하기, 쓰기, 매체 영역

우리의 언어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와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루어 보세요.

제재 본문 요소

▼ 스스로 검색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 검색 배경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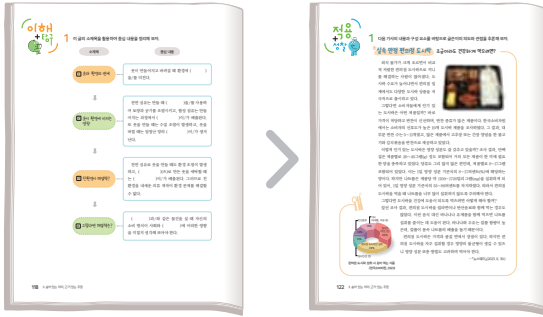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는 배경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 감상 넓히기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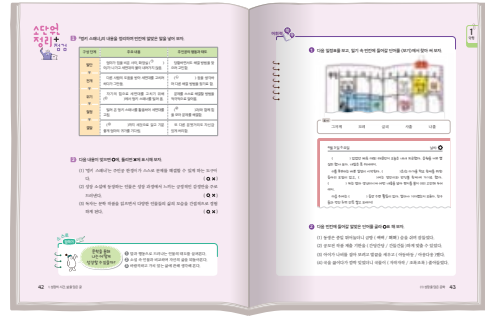
이해+탐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단원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 목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세요.

적용+성찰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제재와 과제에 적용하여 심화, 확장해 보세요. 또한 학습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는 활동도 해 보세요.

소단원 마무리



소단원 정리+점검

소단원에서 학습한 핵심 내용을 간단한 문제로 점검해 보세요. 소단원이 시작될 때 보았던 핵심 질문의 답도 확인해 보세요.

어휘력 쑥쑥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한 개념 어휘와 내용 관련 어휘의 의미를 다양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학습 활동 요소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말을 살펴보세요.



학습 목표와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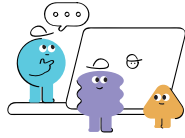


소단원의 내용을 실생활 속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학습 도우미
문법, 쓰기 영역의 활동에서 '세모'의 학습 도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 책의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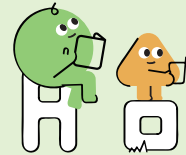
1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문학 쓰기

- | | |
|-------------------|----|
| (1) 성장을 담은 문학 | 12 |
| 멍키 스페너 _ 진형민 | |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44 |

한 권 이상 읽기 스스로 찾아 즐겁게 책 읽기

- ▶ **문학:**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 ▶ **쓰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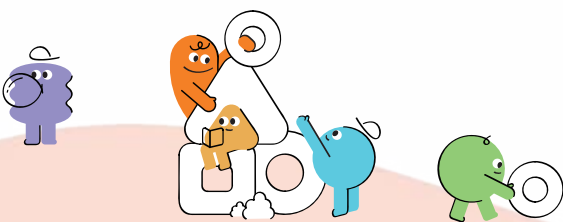


2

다양한 단어, 모두의 어휘 문법

- | | |
|----------------|----|
| (1) 단어의 짜임과 새말 | 72 |
| (2) 어휘의 양상과 쓰임 | 88 |

- ▶ **문법:**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여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 ▶ **문법:**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3

숨어 있는 의미, 근거 있는 주장

읽기

쓰기

(1) 추론하며 읽기 110

내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갔까 _ 이주은

(2) 주장을 담은 글 쓰기 128

▶ **읽기:**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 **쓰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4

연결하는 매체, 해결하는 토의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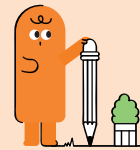
듣기·말하기

(1) 슬기로운 매체 생활 154

(2)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172

▶ **매체:**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 **듣기·말하기:**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록
196

- 정답
- 활동지
- 단원별 제재 출처
- 단원별 사진·삽화 출처
- 큐알 코드 목록

1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1) 성장을 담은 문학 문학

멍키 스페너 - 진형민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쓰기

한 권 이상 읽기 스스로 찾아 즐겁게 책 읽기

대단원 학습 목표


-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문학 작품에는 인간의 다양한 삶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작품 속 등장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삶과 경험에서 느낀 정서를 글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단원에서는 인간의 성장을 다룬 소설을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문학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 볼 거예요. 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글을 써 보기도 할 거예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 향유 역량과 자기 성장·계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1) 성장을 담은 문학

 **학습 목표** >>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문학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감상 열기

-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작품 읽기

-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 명키스페너_진형민



이해+탐구

- 작품 속 인물의 변화와 성장 과정 이해하기
-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삶 되돌아보기



적용+성찰

- 성장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 자신의 성장 경험 표현하기



소단원 정리+점검

-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점검하기
- 어휘력 쑥쑥 키우기

스스로
계획하기

이 단원과 관련한 이전의 학습 경험을 떠올려 보고,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워 보자.

-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에서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을 발견한 경험이 있어.
- 문학 작품을 읽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의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멍키 스페너



작가와 함께
감상 열기

- 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갑자기 고장 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 ②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에요. 인물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며 다음 작품을 읽어 보세요.

멍키 스페너 진형민

• 등장인물



❓ ‘나’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구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십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빛 깔 입술 보호제와 고양이 휴대 전화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삼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언니, 배고파.”

- 팔자(가) 늘어지다 근심이나 걱정 따위가 없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
- 다저녁때 저녁이 다 된 때.

옆구리에 흑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짹짹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한아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졸졸졸졸졸.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하는데 한아가 끄응,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다.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찌겠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 중이다.

“언니이이이.”

한아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늘어 부른다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계속 자는 척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 슬슬 배가 고파 왔다.

“왜?”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한아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등등 뜬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 밥투정 밥이 먹기 싫어서 또는 밥을 더 달라며 짜증을 부리는 일.
- 그저께 어제의 전날.





“물이 안 내려가.”

나는 한아한테 비키라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쏙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 주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5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10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행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사 일이나 남았다. 15

❓ 화장실에 발생한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요?

• 배수구 물을 빼내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곳.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감자조림과 시금치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두 개 부쳤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한아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장조림 담긴 통을 들고 왔다.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5 전등불이야 원래 오래 쓰면 저절로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세면대는 갑자기 왜 저럴까 생각해 봤다.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아가 반찬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다. 고무줄을 가져와 뒤통수 위에다 동그랗게 말아 묶어 주었다. 그리고 보니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 내 머리도 감고 한아 머리도 감겼다.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다 몸을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만 대충 감고 지나갔다.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시작인데,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땅거나 여기저기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둘러 주고 있다. 애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20 사실은 나도 머리가 길다. 그렇다고 한아처럼 남들 눈에 좀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다. 우리 반만 해도 머리 짧은 애보다 긴 애가 훨씬 많으니까 애당초 이런 걸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없다.

나는 초등학교 육 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아이들의 반응이 내 예상과 좀 달랐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였다.

❓ '나'는 왜 엄마가 동생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막았나요?

- 수작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호들갑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

애들이 돌아가며 하는 말들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진짜? 아이 씨, 어떡해.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어때? 아직도 커 보여? 좀 다시 보라고. 이래도 얼굴 커 보여?”

결국 나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몽텅몽텅 자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만큼 자를 거 왜 비싼 돈 들여 미용실에 가느냐고 야단을 했지만 그 정도 구박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원래 호되게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은 뼈에 새겨지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휘날리며 사는 중이고,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짹짹 짹 내곤 했다. 이 노무 짹, 가시나들 짹, 머리를 다 짹짹, 밀어 버릴라 짹짹.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쪽쪽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됐다. 그러니 이를 어찌면 좋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만년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할머니.”



• 철물점 철물(쇠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